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수탁과제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출장목적	○ 스웨덴·노르웨이의 고용부, 교육부,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한국 정책 개선의 시사점 도출 - OECD 국가들 중 모범적인 양육지원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현황 및 이슈점검 - 일생활균형정책이 발달되어 있고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선정 - 전문가 미팅: 정책현황 청취 및 한국 정책 사례 소개와 정책 방향성 자문 - 담당부처 및 기관 방문: 고용친화적 양육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현장 방문					
출장기간	당초	6.5(수)~6.14(금)		변경	변경없음	
출 장 지	당초	스톡홀름(스웨덴), 오슬로(노르웨이)		변경	변경없음	
출 장 자	김은지 연구위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출장비용	항공료	2,466,100원		체재비	2,529,000원	
출장업무 처리 개요	별도 붙임					

주요 논의 결과

1. 노르웨이 교육부(6.6)

□ 노르웨이 개괄: 인구 530만. 1만7천 사미족. 422 municipal, 18 county.

□ 보육·유아교육 업무

- 이전에는 가족부에서 관리, 최근 교육부에서 관리함. 보육의 개념에서 아동교육과 발달의 개념으로 전환
- 중앙의 교육부는 보육·유아교육 영역의 총괄적 책임. 지역(municipal)은 보육시설의 공식적 감독주체(승인, 재원조달, 감독)이면서 소유주체(보육시설 46%, 조등은 99%)임.

□ 정책발달: 노동시장정책에서 아동중심정책으로

- 노르웨이의 사례는 2003년 유치원 합의가 중요

1983년부터 보육·유아교육 정책이 시작됨. 2000년대에 와서 보육·유아교육 관련 문제가 부각됨.

- 불평등문제

접근성: 보육시설 수요 증가, 보육시설 이용율 급증.

2009년부터 보육시설 이용율이 90%에 근접하여 20-49세 여성고용율(80%)을 넘어섬.

보육시설 이용료: 시설별 이용료 상이했음. 불평등 문제 제기됨.

재원: 공공보육시설만 지원해 옴,

공공과 민간을 모두 지원하면서 강한 규제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변화 필요.

- 형평성과 보육의 질 문제: 보육의 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
- 그 외 육아휴직(거의 1년)(49주 100% 또는 59주 80%) 및 미취업 부모를 위한 정액급여(83,140 NOK), 육아휴직급여 받은 후 23개월까지 보육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7,500 NOK), 0-18세 매월 아동수당(970 NOK), 조세 혜택 등
 - ※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당간 입장 차이(평등을 위한 교육 vs 선택의 자유).
- 현재 양육수당 축소,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
- 보육시설 투자와 출산율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 2008년부터 출산율이 다소 낮아져 원인 분석중

□ 노르웨이 보육시설

- 1~2세 아동 83.5%, 3~5세 아동 97.1%가 보육시설 이용
 - ※ 12-23개월 아동 보육시설 이용율: 2002년 보육시설 22%, 친척과 베이비시터 22%, 부모 56%
 - 2016년 보육시설 72%, 친척과 베이비시터 4%, 부모 24%
- 95.5%가 종일제로 이용: 7:30-17시(부모 일하는 시간 8시-4시)
- 98.6%가 센터형 보육시설, 1.4%는 가정 보육시설, 그 외 개방형 보육시설
- 54% 민간, 46% 공공(municipal)
- 재정의 86.4%는 국가지원, 13.5%는 이용자부담금, 부모부담금 최대액은 2,990NOK+식비(310NOK수준), 저소득층은 비용보조하며 전일제 이용 한 아동당 가구소득의 6%를 넘기지 않도록
- 모든 3-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20시간의 무상시간 제공, 2019년 안에는 2세부터 시작하도록 함.
- 교사:아동비율은 1:7, 1:14, 직원:아동비율은 1:3, 1:6, 전체의 9% 남성

□ 노르웨이 학교

- 1학년 정규시간 사례(학교마다 다름)
: 8:00 돌봄, 8:30-11:00 수업(45분 수업, 10분 휴식, 20분 점심), 11:00 중간휴식, 11:30-13:30 수업(45분 수업, 10분 휴식), 13:30-16:30 돌봄(14:00 식사)
- 점심은 도시락을 가지오며, 간식은 비용부담 있고 municipal이 비용보조
- 교사 대 아동 비율: 1-4학년 15:1, 5-10학년 20:1, 2반 통합하여 2담임제로 운영하거나 반 규모를 달리하는 등 학교마다 상이하게 운영
- 돌봄참여율 1학년은 81%
-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지는 추세

2. 노르웨이 고용부(NAV)(6.6)

□ 노르웨이 고용복지부(NAV)

- 노동과 복지 모두를 관리하는 정부기구. 아동·가족관련 급여 및 직업훈련 등도 모두 관장함.
- 1967부터 시작. 정부 재정지출의 1/3을 NAV에서 사용함.

□ 노르웨이 육아휴직제도

- 2014 daddy 쿼터 감소했다가(보수당 - 선택의 자유 논리), 2018 다시 증가함. 남성의 70%가 사용.
- 10달간 6달 이상 일정한 소득 이상(eligible income, 45,000크로나)이어야 소득대체급여. 이 이하인 경우 일회성 정액급여 2018기준 아동1인당 83,140 NOK(낮은 수준은 아님).
- ※ 아빠만 조건이 되고 엄마는 조건이 안되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빠가 안쓰면 엄마가 정액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정액급여를 받는 여성의 숫자는 만명 정도로 일정함.
- 6주는 반드시 산전에(산전에 못쓰면 없어짐)
- ※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따로 없음. 연차 사용함.
- 급여이용은 두 가지 형태가 가능(소득대체율 100% 또는 80%). 대다수인 80%가 100% 소득대체율 급여를 선택(소득보전 때문)
- 재원은 일반재정.
- 육아휴직기간을 대부분 거의 다 활용함.

□ 육아휴직의 구조와 수준

- 엄마쿼터: 15주 100% 또는 19주 80%. 그 외에 산모가 아프면 3주 병가를 쓸 수 있음.
(=> 입양 동일. 3주 병가는 제외)
- + 아빠쿼터(동성애부부 co-mother): 15주 100% 또는 19주 80%
- + 부부조인트(부부 중 선택): 16주 100% 또는 18주 80%.
- 쌍둥이의 경우 17주(100%)/21주(80%), 세쌍둥이 이상은 46주(100%)/56주(80%)가 추가.
최근 쌍둥이 관련 정책이 이슈가 되어 작년 7월부터 기간 늘림.
- 육아휴직은 아기가 3살이 되기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동시사용:
급여는 한 가구에 한번에 100%만 지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하여 50% + 50%도 가능)
- 아빠들은 남성 쿼터만큼만 사용. (제도변경에 따라 그대로)
- 10%의 남성은 육아휴직 전혀 안씀(자리를 비울 수 없거나 등의 이유). '강제'는 아님. 선택의 문제.
- ※ 중소기업의 남성들이 못쓰는 경우 있음. 대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계속

고용할지는 회사의 선택.

-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경우:

아빠의 경우 100%로 40주, 80%로 50주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엄마가 학생이거나 아파서 소득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아빠가 다 받을 수 있음
엄마는 100%로 46주, 80%로 56주로 6주는 출산휴가의 개념, 특히 3주는 출산전에 사용해야 함.

이때 아빠는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엄마는 육아휴직을 전체 다 쓸수 있어서, 성차별이라는 지적있음.

- 한부모의 경우 남녀 모두 100%로 46주, 80%로 56주

- 육아휴직 중 분할사용 가능하며 분할기간 중 일할때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심각한 병(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심각한 사유)일 때는 육아휴직 사이에 병가를 끼울 수 있음(21일, 육아휴직기간으로 count 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임금 줄이고 육아휴직 급여 제공(소득대체율 100% 급여로 제공).

출산전 3주, 출산후 6주 이내에는 단축제 사용 불가.

활용율 높음

- 휴가신청은 회사에, 급여신청은 정부에(신청 자동화 <http://familie.nav.no/>)

휴가신청을 막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부에서 관리감독을 함. 노동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서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끔 이민자가 법을 어기는 경우는 있음.

3. 노르웨이 어린이집(6.7)

□ 이용 신청 및 자격

- 어린이집 신청은 5개 지정해서 구청에 신청함.

- 아동은 6개월부터 보낼 수 있으며 12개월에는 대부분 보냄

- 아이가 아픈 경우 부모가 유급휴가(10일)을 활용해서 아이를 돌봄

-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려서 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함

□ 운영시간

- 운영은 7시반부터이며 9-15시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있음. 오후 5시에는 데리고 가야 함.

- 교사들은 중간에 30분 의무 휴식시간, 돌아가면서 휴식룸에서 휴식하며 나갈때는 허락을 받고 나갈 유급휴식시간이라 업무 완전 면제가 아님.

- 50%는 정규교사, 50%는 보조교사(보조교사는 1달 실습, 주로 전문대학에서 아동관련 과목 이수자)

□ 어린이집 구성과 재정, 부모참여

- 3개 반 운영으로 20명반(교사 3~5명)+14명반(교사1~3명)+14명반(교사1~3명)

- 평등과 다양성을 중요히 여김, 남성교사, 성소수자교사, 다문화교사 채용 장려.

- 재정은 85%는 municipal, 15%는 부모가 부담하는데 민간이 공공보다 지원비율이 약간 낮음.

4. 노르웨이 초등학교(Ruseløkka skole) (6.7)

□ 노르웨이 교육시스템

- 평등이 중요함. 초중등교육은 통합된 시스템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반해 운영.

- 노르웨이의 학력수준은 유럽국가 중 상위권임. 학생 만족도가 높음.
- 의무교육은 10년, 초등(6-13세), 중학교(13-16세), 고등학교(16-19세)
- 초등, 중학교는 municipal(기초지자체) 관리. 고등학교는 county(광역지자체) 관리
- 1997년 전에는 의무교육 7세에 시작, 1997년부터 6세부터 시작
- 오슬로에는 168개의 초등학교, Ruseløkka skole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 있음.
- 1~4학년은 교사:아동비율은 1:15이며, 구성 방법은 다양함(예 : 30명에 교사 2명 등등)

□ 노르웨이 학교 스케줄

- 학교는 늦은 8월부터 다음해 6월 중순까지. 그 사이는 여름방학이며 1년에 190일 학교 다님.
- 학교시간은 1교시(9시-10시), 2교시(10:15-11:15), 3교시(12시-13시), 4교시(13:15-14:15), 월-목 4교시, 금요일만 3교시임. 1~4학년은 동일하며 7학년까지 1~1.5시간 더 길어지고 중학교에서는 더 김.
- 점심시간은 30분이며 무상급식이 아니고(스웨덴은 무상급식) 도시락 지참함.
- 교사 근무시간은 14:15분 수업 끝난 후 2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함. 1주일에 43시간 정도 근무하며 주 6시간 수업을 담당함. 연간 근무일은 195일로 5일간 학교 준비 기간임. 교사 월급은 1년동안 나누어 지급.

□ 노르웨이 학교 방과후돌봄

- 1999년 1월부터 municipal은 초등 1-4학년 학생에게 방과후돌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연령, 신체능력, 관심사에 따라 놀이와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함. 전통적인 노르웨이 스타일은 야외활동을 중요하게 여김.
- 방과후 돌봄은 1~4학년 참여 가능하며, 1학년은 82%의 참여율로 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은 낮아짐
- 이용시간은 16:45분까지임.
- 비용은 2470크로나로 지역마다 다르며, 저소득층은 자치단체별 별도 지원이 있음.
- 보조교사가 방과후 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직접적인 자격조건은 없으나 직업학교에서 관련수업 이수자를 선호함.

5. 스웨덴 고용부(6.10)

□ 스웨덴 성평등·성주류화 현황과 역사

- 현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 정부로 중도당, 자유당 연정체제임. 23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여성과 11명의 남성으로 구성. 성평등부는 별도 행정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평등 장관이 존재함. 성평등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속 부가 변경될 수 있음. 성평등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 90개를 2년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남녀 분리된 성인지통계를 구축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 성평등의 역사는 1970년대에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남녀부양자-돌봄자모델로 변화함. 1974년에 사회적 제도적으로 큰 전환점을 경험함(개인별 과세, 육아휴직 도입, 공공돌봄시설 확충). 이러한 전환은 이 시기 스웨덴의 호황에 따른 노동력부족 요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본토에서 전쟁을 겪지 않아서 철강, 목재 등의 자원이 풍부하였고 이에 대한 유럽의 높은 수요가 있었음. 이에 대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같은 시기 남유럽은 이민자 인력을 받아들임. 이와 함께 여성운동의 영향력이 활발히 나타나 정치적인 의지로 작용함.
- 지난 40년동안 스웨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완화는 육아휴직 남성 사용율에서 확인할 수 있음. 1970년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높지 않았으나 40년동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크게 증가함. 이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크게 높아지고 전업주부가 사라지기 시작함.
- 1990년대 성주류화가 활발히 일어남. 1999년 성매매 금지, 구매자만 처벌. 현재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화

(술을 마쳤거나 몸을 가눌수 없는 상황의 성행위는 범죄).

- 성평등의 성공요소는 정치지도자의 의지, 관련된 제도의 뒷받침, 충분한 연구와 평가, 공무원들의 충분한 훈련과 교육. 정책적으로는 성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으며, 여성이 시간제로 더 일하고 있어 연금 수령액도 낮음.
- 성평등의 성공요소는 정치지도자의 의지, 관련된 제도의 뒷받침, 충분한 연구와 평가, 공무원들의 충분한 훈련과 교육 등을 꼽을 수 있음. 정책적으로는 성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으며,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도 여성이 더 높고 연금 수령액도 여성이 더 낮음.
- 성평등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평등한 노동시장참여('경제적인 평등'), 이와 함께 젠더와 관련된 폭력의 해결임.

□ 스웨덴 가족정책

- 스웨덴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복지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평등한 노동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가족정책의 전반적 특징은 질높고 적절한 가격, 충분한 시간의 돌봄시설과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근로시간(1년 25일의 연차, 40시간 전일제).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고용주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1년에 3번 육아휴직 사용하는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이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법적으로 휴직 전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으며, 휴직 중에 해고는 기업사정이 어려워도 불가능함. 아이가 아플 때는 별도의 휴가권이 있으며 고용주에 미리 통보하고 쉴 필요 없음(아이가 아픈 것은 예측 불가능)
- 육아휴직제도는 아이마다 480일로 여성들은 15.3개월 정도 휴직함. 480일 중 90일은 남녀 각각에게 할당되어 있음. 1995년에 30일 도입, 2002년에 30일을 더 추가(60일), 현재는 90일.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노동자의 의무는 아니며 쓰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임. 이 육아휴직 사용일 중 아동이 4살이 된 이후에는 12세까지 96일만 쓸 수 있음. 영아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을 살 수 있고, 아빠가 일찍 돌봄에 참여할수록 아동과 관계가 좋다는 이유임. 실제 육아휴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사용함(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남성이 25% 정도임).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남녀가 동등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390일은 80% 수준으로 상한선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서 10%를 더 보전해 주는 곳이 많음(임금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는 100%, 25%, 50%, 75% 등으로 선택이 가능함. 그 외에도 아이가 8살되기 전에 근로시간의 25%까지 줄일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도 줄어듦, 육아휴직급여를 이에 맞춰서 받을 수 있음. 급여를 다 받으면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만 가능.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원칙이나 2018년 기준 평균 단체협약 시간은 여성 35시간, 남성 3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여성 30시간, 남성 32시간임(차이는 아파서 못오는 시간 등임)
- 어린이집 이용은 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중이거나 실업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음.

6. 김진석 교수 면담(6.11)

□ 돌봄노동의 민영화 현황

- 민간 비중은 노인돌봄의 경우 시설요양은 20%(스톡홀름은 50%까지). 재가요양의 경우는 보다 영세하며, 15% 수준임. 아동돌봄은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민간이 20% 정도이며, 초중등교육도 민영화되는 경향이 발견됨.
- 스웨덴에서 나타나는 민영화는 시설소유는 여전히 지자체이면서 운영권을 2-3년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

는 방식임(우리나라로 치면 국공립시설 중 민간위탁에 해당함. 한국의 국공립시설에 해당- 국공립 100%).
요새는 직접 민간이 지어서 일부를 지자체에 파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을 규제하는 방식은 국공립
과 동일한 지원금임. 지원방식은 돌봄필요자 1인당 지원금을 주는 방식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따로 되
지 않고 민영화 진행됨. 최근에서야 영리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 중(초중등교육에서는 영리를 내보내기 시
작).

- 지자체(코뮌) 입장에서는 민간과 공공 차이가 없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내용은 같음. 언어, 프로그
램 차이 정도가 있음. 그러나 돌봄노동자 입장에서는 하청구조 활용,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남.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잘 이루어지나. 민간-공공 간 pension의 차이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
하고,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축적에 영향을 미침. 스웨덴에서도 초단기계약, 단시간 근로의 문제가 발생해 노
인돌봄, 아동돌봄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맺었음(2017).

※ 아텐도 스캔들: 4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는 요양근로자의 문제. => 민간 규제의 필요성 제기됨.

-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노동측면에서의 대응에서 차이가 있음. 비슷한 흐름이나 노르웨이는 시장화의 수준이
낮고 속도도 더딤.

- (시장성) 스웨덴은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들어갈
여지가 있었으나(대도시 외에는 거의 시장화 진행 안됨) 노르웨이는 인구가 작아 시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석유로 인해 예산이 많아 절감요인 강하지 않음.
- (노조-정부 관계) 스웨덴은 사민당과 노조 사이의 연대가 강해 노조가 견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아이러
니가 발생. 노르웨이는 노조의 반대가 더 컸음

- 20년 동안의 민영화 시도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임. 장기요양의
경우 제공하는 민간업체가 현재 합병을 통해 2개만 남음. 20년동안 현실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민간 2개 vs 공공). 민영화 논의는 현재 소강상태이며, 향후 방향은 지자체(코뮌), 정치인들이
하는 결정이므로 지역마다 다를 것임.

□ 민영화와 서비스의 질

- 민영화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강화"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스웨덴, 노르웨이 누구도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

- process measure(몇 번 자리를 바꾸었는지. 몇 번 방문했는지. 기저귀나 자주 가는지. 시트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을 경우 오히려 관계에 들일 시간이 줄어듦.
- 대안적 지표로 건강지표(회복율 등): 노인들은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돌아가시는 것이 일반적 경로
이므로 측정이 어려움.
- 이용자 만족도(돌봄을 받는 사람.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은 돌봄관계에서 약자이므로 실질적
평가가 어려움. 돌보는 사람에게 하면 민영화 전후가 별 차이가 없음.

- 민간시설은 수요자가 돈을 더 내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화의 경향은 있었음. 이는 평등을 저해
하는 결과를 낳음

- 질관리를 위해 세가지 차원에서 개입.

- 지자체(코뮌): 전체적인 관리기능(궁극적인 책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불만사항 접수/ 서비스제공자
바꾸는 것 요청. 일상적 관리.
- 사회보장청: 사회복지전반에 걸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 뿌리고. 해마다 통계를 냄.
- IVO: 사회서비스/의료에 특화해서 질관리. 중앙정부 기구. 관리감독기관. 소비자의 불만, 노동조건 등
이 리포트가 되면 갑자기 방문해서 클라이언트 만나서 인터뷰, 점검하는 방식임.

- 결론적으로 민영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영화와 비용절감

- 비용절감 또한 파악하기가 어려움. 예산 결정시 수요만큼의 지출을 하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을 비교할 수가 없음.
- 공개입찰을 통해 강제 비용절감효과는 있었을 것임. 그에 수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또는 서비스 질 악화가 수반되었을 듯. 서비스제공능력이 아니라 입찰서류를 잘 꾸릴 수 있는 능력(bidding 능력)이 중요해지는 문제.
- 스웨덴의 경험을 살펴보면 민간을 '더 효율적으로' 짜낼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역효과가 매우 컸음(평등의 저해+돌봄근로자의 노동강도로 인한 장기적 부정적 효과).

7. 스웨덴 초등학교(6.12)

□ 학생 수와 학급, 교사 수

- 전교생 1200명, 교사+스태프 합쳐서 165명(교사 80명)임. 교사들은 학교를 옮겨다니지 않고 이 학교에서만 근무하며 교장선생님도 예전에는 5년마다 옮겨다녔으나 이제는 한곳에서만 근무. 6-9살, 10살-12살, 13-15살까지 세 그룹으로 운영, 2살에서 5살은 preschool, 6살이 0학년. 7살이 1학년임.
- 아동:교사 비율은 6-9살은 28:3(1교사+2보조교사). 10살 이상은 28:1. 이 학교는 좋은 지역에 위치해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임.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40명)을 위한 공간이 있음(한 반에 교사+보조교사. 거의 1:1 수업 진행).

□ 수업시간

- 학교시간은 9시에 정규수업이 시작되며 9살까지는 2시이전까지, 10-12세는 2-3시(가끔 4시)까지 수업함, 쉬는시간은 20분. 수업은 한시간 정도 하며 점심은 무료로 제공. 정규수업 시간 후에 돌봄(클럽)이 5시까지 운영. 클럽에서도 간식도 주며 클럽은 보조교사가 진행. 비용은 큰 아이들은 60유로/6개월. 작은 아이들은 100유로/1개월 정도로 아침. 대신 이 아이들은 아침도 주고 학교시간이 짧아서 더 오래 돌봄.
- 교사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8시간으로 학교에 38시간을 있고 나머지 10시간은 집에서 일해도 됨.

□ 최근 교육의 변화

- 2011년 커리큘럼을 바꾸는 큰 변화가 있었음. 이전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더 소그룹으로 따로 관리했으나 이제는 통합교육을 지향함. 또한 부모의 영향력이 높아짐. 부모가 교감에게 수업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법적 권한이 생김.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있음.
- 최근 스웨덴에서는 교사가 인기있는 직종이 아니고, 교사가 부족함. 교사의 월급은 은행원, 엔지니어 같은 직업군보다 훨씬 높음(초임교사 월급은 세전 약 3,500유로. 30년 정도 일하면 5,200유로. 엔지니어는 초임이 약 3,000유로 정도)
- 학력평가는 AI를 통해 테스트하며, 성적은 6학년부터 A-F로 매김. 3학년 6학년 9학년때 세 번 국가차원의 시험이 있고(2000년정도부터 도입) 그 외에는 학교 재량으로 시험을 봄.